

# BRAD REPORT

NO.27

20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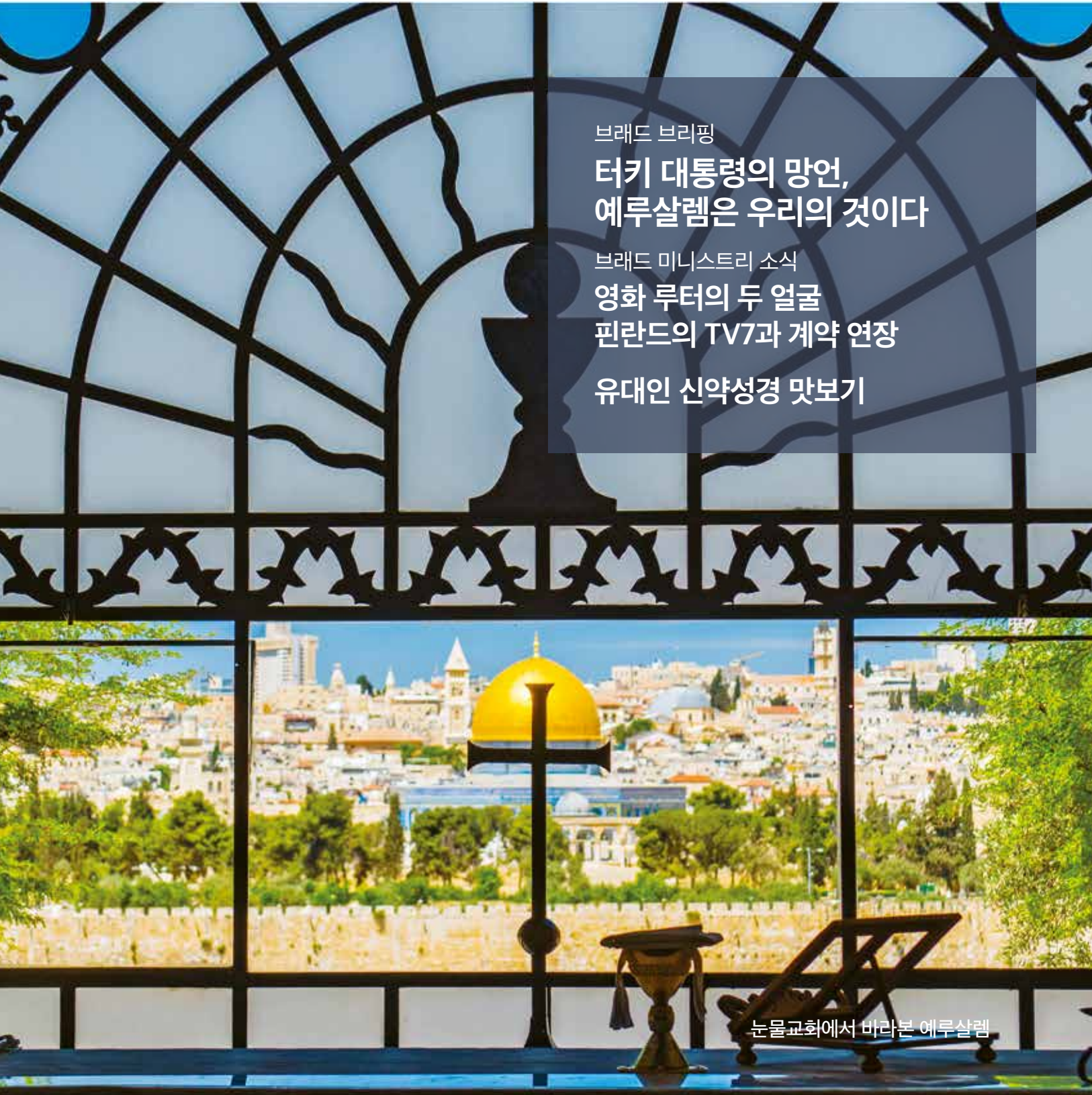
브래드 브리핑

터키 대통령의 망언,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영화 루터의 두 얼굴  
핀란드의 TV7과 계약 연장

유대인 신약성경 맛보기



눈물교회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 브래드TV가 지키는 몇 가지 원칙

브래드쇼에 출연하기 위해 오신 분들에게 촬영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점이 있습니다. 토크를 하는 도중에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단체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나쁜 의미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로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방송에서 거론하는 것을 정작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론해야 한다면 그냥 어떤 분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브래드TV를 운영해 오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지켜왔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의 의견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지적하거나 문제 삼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만이 옳고 정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한다고 해도 역시 저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끔 다른 분들이 설교나 강의 시간에 지나 브래드TV에 대해 비난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귀한 예배 시간에 또는 강의 시간에 대중 앞에서 남의 이름을 거론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을 쏟아붓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누군가를 지목하며 정죄할 만큼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난 이가 없이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 꽤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브래드TV는 메시아닉 주가 만드는 방송인데 메시아닉 주는 이단들이니 보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브래드TV에게 WCC에 가입된 특정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고 분명히 말하지만 브래드TV는 지금까지 특정 교회나 기업, 그리고 단체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강력하게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후원자들이 보내 주시는 귀한 돈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창의적이고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의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보면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놓고 비난하거나 특정 교회를 지목하며 비난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설교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고 같은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안 그래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물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브래드TV는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며 방송할 것입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김종철 감독

- 5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터키 대통령의 망언,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다
- 10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희대의 가짜 뉴스에 메시아닉 단체의 대응
- 14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로 통합정부 붕괴 위기
- 16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영화 루터의 두 얼굴 TV7과 계약 연장
- 18 유대인 신약성경 맛보기
- 20 하나님 말씀의 능력 5부  
유럽에 덮친 두 번의 재앙과 종교개혁
- 24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대절기 기간 동안 유럽서  
반유대주의 테러 잇따라 발생
- 28 유대 역사 속의 11월  
엘 알 항공, 이스라엘 국책 항공사로 도약
- 30 브래드TV 9~10월 프로그램 리스트

# 도라포션 5781 2020

올법은 기록하고  
계명도 기록하고  
의로우며 선택하다  
롬 7:12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도라포션

## 헤쉬반월

'마르 헤쉬반'이라고도 불리는 헤쉬반월은 로쉬 하사나(나팔절)로부터 계산했을 때 유대력의 둘째 달(닛산월로부터 여덟째 달)로, 절기나 특별한 계명이 없는 유일한 달이다. 노아의 홍수가 이달에 시작됐으며 1년 후 이달에 방주에서 나왔다. 유대교에서는 흔히 헤쉬반월이 제3성전에 즉위하는 마쉬아흐(메시아)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 11월 헤쉬반 & 키슬레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헤쉬반 14	2 헤쉬반 15	3 헤쉬반 16	4 헤쉬반 17	5 헤쉬반 18	6 헤쉬반 19	7 헤쉬반 20

바에라(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창 18:1~22:24 / 왕하 4:1~37 / 눅 1:26~38, 24:36~53 벨후 2:4~11

8 헤쉬반 21	9 헤쉬반 22	10 헤쉬반 23	11 헤쉬반 24	12 헤쉬반 25	13 헤쉬반 26	14 헤쉬반 27
----------	----------	-----------	-----------	-----------	-----------	-----------

하에이 사라(사라의 삶) 창 23:1~25:18 / 왕상 1:1~31 / 마:1~17 고전 15:50~57

15 헤쉬반 28	16 헤쉬반 29 월삭	17 키슬레브 1 월삭	18 키슬레브 2	19 키슬레브 3	20 키슬레브 4	21 키슬레브 5
-----------	-----------------	-----------------	-----------	-----------	-----------	-----------

톨도트(계보) 창 25:19~28:9 / 말 1:1~2:7 / 롬 9:1~31

22 키슬레브 6	23 키슬레브 7	24 키슬레브 8	25 키슬레브 9	26 키슬레브 10	27 키슬레브 11	28 키슬레브 12
-----------	-----------	-----------	-----------	------------	------------	------------

바에제(그리고 그가 갔다) 창 28:10~32:2 / 호 12:12~14:9 / 요 1:19~51

29 키슬레브 13	30 키슬레브 14
------------	------------

바이실라흐(그리고 그가 보냈다) 창 32:3~36:43 / 음 1:1~21 / 히 11:11~20 마 26:36~46

## 12월 키슬레브 & 테벳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키슬레브 15	2 키슬레브 16	3 키슬레브 17	4 키슬레브 18	5 키슬레브 19

바이실라흐(그리고 그가 보냈다) 창 32:3~36:43 / 음 1:1~21 / 히 11:11~20 마 26:36~46

6 키슬레브 20	7 키슬레브 21	8 키슬레브 22	9 키슬레브 23	10 키슬레브 24 하누카 1	11 키슬레브 25 하누카 2	12 키슬레브 26 하누카 3
-----------	-----------	-----------	-----------	---------------------	---------------------	---------------------

바에셰브(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창 37:1~40:23 / 암 2:6~3:8 / 마 1:1~6; 16:25

13 키슬레브 27 하누카 4	14 키슬레브 28 하누카 5	15 키슬레브 29 하누카 6 월삭	16 테벳 1 하누카 7 월삭	17 테벳 2 하누카 8	18 테벳 3 하누카 8일째	19 테벳 4
---------------------	---------------------	---------------------------	------------------------	------------------	--------------------	---------

미케쯔(끝에) 창 41:1~44:17 / 왕상 3:5~28 / 롬 10:1~13

20 테벳 5	21 테벳 6	22 테벳 7	23 테벳 8	24 테벳 9	25 테벳 10	26 테벳 11
---------	---------	---------	---------	---------	----------	----------

바이가쉬(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창 44:18~47:27 / 겔 37:15~28 / 엡 2:1~10

27 테벳 12	28 테벳 13	29 테벳 14	30 테벳 15	31 테벳 16
----------	----------	----------	----------	----------

바에히(그리고 그가 살았다) 창 47:28~50:26 / 왕상 2:1~12 / 히 11:21~22 / 벨전 1:3~9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랜드  
브리핑**

# 터키 대통령의 망언,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다

지난 10월 1일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정책 관련 연설에서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에게서 온 도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터키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의 평화협정을 마친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과 평화 협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도대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왜,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서 지금 터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브랜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김종철



에르도안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이 도시에서는 오스만 저항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에게서 온 도시다. 예루살렘 문제는 우리에게도 평범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다. 우선 현재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올드 시티의 성벽과 상점가, 많은 건물 등 물리적 외관은 술탄이만 대제가 지었다. 우리 조상들이 도시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수 세기 동안 존경심을 나타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터키의 전신인 과거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과 예루살렘**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자그마치 7백 년 이상 이어졌는데요. 특히 술탄이만 1세 때에는 비잔틴 제국 등 유럽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라비아반도와 소아시아와 멀리 이란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며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번성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517년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이후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에 의해 점령되기 전까지 4백 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지난 4백 년 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들도 그때 당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1600년대 오스만 제국의 영토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터키가 쌓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터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좀 생똥맞은 발언이 아닐까요? 슬픈 일이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에도 많은 건축물을 짓기도 했고 또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서울은 우리의 것이다. 조선땅에 우리가 많은 흔적들을 남겨 놓았으니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2014년 터키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르도안은 2017년 4월, 헌법 개정으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선거를 시행해 당선되면 다시 5년을 더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018년 에르도안 대통령은 조기 선거를 시행해 당선이 됐고 개정된 헌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33년 이후 또다시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종신집권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또다시 재선에 성공했을 때 국제사회는 그를 가리켜서 21세기의 술탄이 탄생했다고 비웃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의 술탄에 비교해도 절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엔 1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 의혹 등 각종 스캔들도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막강한 힘으로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2016년엔 에르도안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불발 사건으로 그치면서 그 과정에서 2천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계획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전 2023’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은 현대 국가 터키의 건국 백 주년이 되는 해인데 2023년까지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 오스만 제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 그리고 유럽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라비아반도와 소아시아와 멀리 이란까지도 세력을 확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거의 이런 대부흥을 지금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파워에 따르면 터키는 2005년에 군사력 순위가 20 위였으나 2년 뒤인 2007년에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 그 후에 2011년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10위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터키는 북쪽에 접한 흑해를 제외하고 동쪽, 서쪽, 남쪽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쪽의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영향력을 확보했고 동쪽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에서도 군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아르메니아 국가와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을 돕는다며 군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는 지금 독재자 카다피가 사라진 리비아의 내전에 끼어들어 시리아에서처럼 러시아와 함께 그곳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처럼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스스로가 아랍 이슬람 국가 이익의 보호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 중동 챔피언의 길, 이스라엘에 대항하라

그리고 그렇게 중동의 챔피언이 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항해야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란의 지도자들이 ‘언젠가 꼭 정복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대변한 것일 겁니다. 이게 바로 에르도안의 속마음이고 결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

했을 때 누구보다도 터키가 가장 앞장서서 미국을 규탄하며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중동은 불의 고리에 들어갔으며 터키와 이스라엘 간 국교를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예루살렘 수도 선언한 당일인 6일, 제일 먼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다음 8일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모임인 이슬람 협력 기구(OIC) 57개 회원국 대표단을 터키 이스탄불로 모아 전 세계 무슬림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정말 전광석화처럼 아주 발 빠르게 움직임을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9월 이스라엘이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터키는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 터키는 십 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 나라도 이미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으면서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매도하는 행태는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 교묘히 이스라엘에 침투한 터키의 영향력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터키는 경제 및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교류를 맺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기획만 엿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첩보기관인 신벳트에 따르면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된 하마스의 최고 사령관 살라 알-아루리가 터키에 그의 본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베이루트와 이스탄불 사이를 오가면서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터키 정부의 공식 원조기구인 ‘티카’라고 하는 단체가 동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그곳의 팔레스타인 사람



들에게 돈과 음식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곳에 커피숍, 호텔, 영화관을 여는 것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인도주의적인 일을 가장해 무슬림형제단의 이념을 홍보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까지 수 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의 시절을 복원하겠다는 에르도안의 거창한 비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최고 사령관 살라 알-아루리

### 터키와 러시아의 밀착 관계

이렇게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애쓰고 있지만 절대로 터키 혼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에르도안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에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2017년 당시 두 사람은 한 해에만 8차례나 만났고 2018년 4월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했을 때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제일 먼저 터키를 방문하면서 두 나라 간의 협력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긴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뭘 했을까요? 로이터 통신은 2018년 4월 3일 터키와 러시아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양국 정상이 터키의 첫 원자력 발전소 착공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00메가와트급 원전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가 건설하며 이 역시 터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르도안은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불렀고 푸틴 대통령은 터키에 판매하기로 한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조기에 인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에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터키에 도착

###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협력

터키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 세 사람이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안정을 해치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훼손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3국 정상들은 시리아 문제 외에도 경제협력 진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3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 에스겔서의 예언,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나오는 국가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곡은 러시아,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 바사는 이란을 말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위의 말씀에는 러시아를 의미하는 마곡과 터키를 의미하는 고멜과 도갈마와 이란을 의미하는 바사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터키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세계가 공격해 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걸프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랍 국가인 바레인과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곧 아프리카의 수단도 곧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의 수니파와 중주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협정 행렬에 가세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의 새 바람에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은 동일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찬물을 끼얹고 있고 그들만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38장 속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나라들의 연합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동에 평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곤 하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만큼이나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 이스라엘-UAE-바레인 사이에 체결된 '아브라함 평화협정'

이스라엘은 지금 하루에 8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이스라엘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합니다. 국민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방역 대책을 믿을 수 없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를 욕하며 매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및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현대의 가짜 뉴스에 메시아닉 단체의 대응
- 기발한 전도로 소외된 영혼에게 다가가다
-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의 긴급한 기도 요청
- 레크 레카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 희대의 가짜 뉴스에 메시아닉 단체의 대응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의 소식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누구보다 말 빠르게 전하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의 이름은 '케힐라 뉴스'다. 케힐라 뉴스는 메시아닉 형제자매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소식 등 주님의 역사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단체다. 이런 '케힐라 뉴스'가 최근 사역을 크게 확장했다고 한다. 새로운 인터넷 뉴스 플랫폼을 만든 것인데, '올 이스라엘 뉴스'와 '올 아랍 뉴스'라는 이름으로 론칭했다고 한다.

케힐라 뉴스가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중동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언론의 편향성 때문이다. 대중에게 사실만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언론이 본분을 저버리고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에 우려를 느낀 케힐라 뉴스가 직접 나선 것이다. 잘못된 내용이 보도된 예로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희생자의 수가 6백만 명이 아니라 훨씬 적은 소수라는 것과 1972년 민헨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인질로 잡은 테러 단체 검은9월단을 오히려 피해자로 묘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노력이 결국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이 뉴스 플랫폼의 편집국장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스라엘 정치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미국계 유대인 조엘 로젠버그가 맡았으며 유대인과 아랍인으로 구성된 소속 기자가 함께 협력하여 취재할 것이다. 새롭게 론칭하는 두 개의 인터넷 뉴스 플랫폼과 구성원들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중요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 ◆ 기도 제목

- 핍박에 굴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많은 사람이 기사를 접하고 거짓 정보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발한 전도로 소외된 영혼에게 다가가다

아쉬듯 인근 지역에서 1970년대부터 사역을 시작한 ‘그레이스 앤 트루스(Grace and Truth)’라는 메시아닉 단체는 복음의 불모지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꾸준히 전도하여 90년도 중반에 이미 약 400명 이상의 구원 받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청소년 사역, 장애인 아동 사역 등 이웃을 향한 예수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귀한 단체다. 특히 연세가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전도하기 위해 관심을 갖던 중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을 함께 여행하면서 그 지역이 성경에서 어떤 역사가 있고 무슨 의미를 있는지 설명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잠시 낮아졌던 지난 두 달간 스무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스무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베데스다와 같은 성지를 다니며 성경 속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아의 사랑을 전했다. 그러자 참여자 중 일부는 ‘성경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나요?’라고 질문하거나 ‘앞으로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고 한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전도 방식을 구상하는 모습이 큰 귀감이 된다.

#### ◆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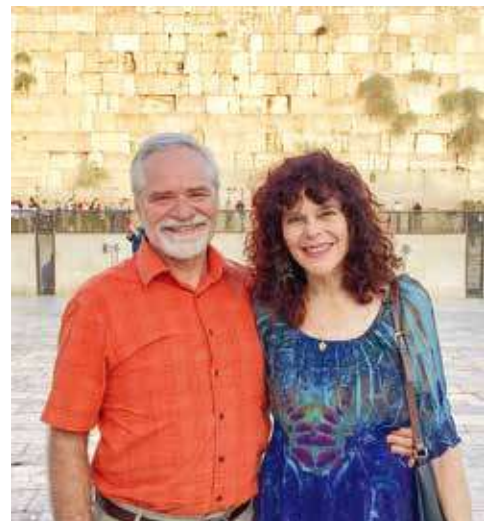
- 그레이스 앤 트루스 메시아닉 단체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위한 성지 여행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하루빨리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의 긴급한 기도 요청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 캐롤린 하이드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 이스라엘로 알리아 했다. 그녀는 예수아를 만난 뒤, 복음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로 거듭났다. 그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남편과 자녀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들 아리엘과 아버지는 지난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에 소개한 메시아닉 단체 ‘트리 오브 라이프’의 리더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캐롤린 남편 리처드 하이드가 긴급히 기도를 요청했다. 캐롤린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에서 달리고 있던 트럭이 급정거하였고, 충돌을 피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캐롤린의 차와 충돌한 것이다. 사고가 난 뒤, 캐롤린의 말이 어눌해지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등 뇌졸중 증상을 보여 긴급히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의료진은 쓰러져 있는 캐롤린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니 아스피린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응급처치가 늦었다.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소식을 들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여 지금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빠른 회복을 보여 의사도 깜짝 놀랐는데, 캐롤린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라고 증거하였고, 사고를 낸 뒤차 운전자에게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집으로 초청했다고 한다. 차량 사고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을텐데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인 캐롤린의 완치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 기도 제목

- 캐롤린 자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의료 관계자와 사고 관련인 모두가 예수아를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치료가 온전히 마무리되어 조금도 건강에 무리가 없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레크 레카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이스라엘의 정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의 봉쇄령을 내렸는데, 메시아닉 단체 레크 레카도 이번 9월 12일부터 온라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던 터라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행사에 참여를 희망한 20명의 학생 중 17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지’라는 청년은 제대 이후 군 생활 동안 침체된 신앙에 다시 열정을 얻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본인이 6명의 식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해서 행사에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또 ‘리오라’라는 청년은 14남매로 대가족과 살고 있다. 예전에 호텔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샤이’는 가족 중 유일하게 예수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이다. 하지만 가족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레크 레카는 이스라엘의 3주 봉쇄 명령이 연장되지 않고 조속히 끝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 기도 제목

- 수련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이 재정적인 문제로 낙담하지 않고 예수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청년을 향한 레크 레카의 열정이 식지 않고 어려움의 시기를 신앙으로 끝까지 이겨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브래드TV에서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이스라엘 전문 월간지! BRAD REPORT를 선물하세요!

브래드 리포트는 브래드TV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 매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싶다면 브래드 리포트를 선물해보세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구독료 5만원  
문의 전화 031-926-2722

※ 해외의 경우, 배송료가 국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글/ KRM News 정리/ 신승의

## 2020년 9월 넷째 주 <9월 17일 ~ 23일>

### 이스라엘 정부, 강화된 봉쇄령 시행 승인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전국 봉쇄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예외사항을 뒀던 기존 봉쇄령에서 강화된 봉쇄령을 25일 오후 2시부터 시행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80%가 회당에 모이는 대속죄일을 앞두고, 이 상태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낸 결정입니다.

강화된 봉쇄령은 '모든 사람들이 봉쇄로 들어가는 것'이며, '회당을 닫고,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실외 기도 모임과 시위는 집에서 1km 반경 내에서 20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한다'입니다. 이는 25일 금요일 2시부터 10월 10일까지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완화된 봉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벵구리온 공항 또한 봉쇄하는 것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회당 실내에서는 10명 이상이 들어가지 못해 실외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 2020년 10월 첫째 주 <10월 1일 ~ 7일>

### 봉쇄 3주 차 일일 확진자 수 감소, 계속되는 시위와 모임

코로나19 봉쇄 3주 차로 접어들면서 확진율이 12.5%에서 8.5%로 서서히 낮아져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해진 혈청 검사에서는 이스라엘 시민의 5.5% 정도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건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쇄가 13일까지 연장되고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곳곳에서 세속적인 유대인 그룹은 반정부 시위로, 정통유대인 마을에서는 장막절 모임과 유명 랍비 장례식 모임으로, 아랍 마을에서는 결혼식으로 많은 인파가 모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규제를 어겨 체포된 정통유대인

###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로 통합정부 붕괴 위기

시위 모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해 청백당의 관광부 장관이 사퇴하고, 간츠가 2019년 12월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서두르면서 이스라엘 통합정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비리 재판과 기소된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에 영향을 줄 법무부 장관직이 청백당과 리쿠드당의 합의하에 지명되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제까지 공석을 채울 수 없었지만, 계속되는 의견 충돌로 간츠가 임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합정부의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2월 23일로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두 당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 네타냐후 지지율 집권 이래 최저치 기록

네타냐후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불만과 비리 혐의로 인해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20년이 넘는 정치 생활 중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당장 총선으로 가는 것을 가정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이 26석, 3월 총선에서 6석을 차지했던 중도우파 베넷의 아미나 당이 23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신임과 인기가 식어가고 있지만 네타냐후의 외교적 성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레바논과 해양 경계를 논의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의 비즈니스 협력 회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요르단은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게 영공을 열어줬습니다.



텔아비브에서 반정부 시위

## 2020년 10월 둘째 주 <10월 8일 ~ 14일>

### 18일부터 1단계로 봉쇄 완화 예정

코로나19로 인해 히브리력 5781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심카 토라까지 모두 봉쇄 속에서 지냈습니다. 약 한 달간 봉쇄 시행 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천 명 선으로 줄어들어, 18일부터 1단계 봉쇄 완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정부 통제, 양극화 현상, 잠재되어 있던 사회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위할 권리', '기도할 권리'를 내세운 정치 공방으로 인해, 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아랍계 인종 차별 문제, 세속적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의 갈등 등 많은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과 전 세계 기독교인으로 북적이던 예루살렘이 텅 비었다

###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 코로나19에 병원 대신 사설 의료 단체 택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응 또한 공동체마다 달랐습니다. 특히 브네이 브락과 메아 쉐아림 같은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에서는 랍비들이 절기와 기도 모임을 지키기 위해 집단 면역 체계를 선택하고,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지금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곧 나타날 때라고 믿어 더욱 정부 방역 수칙보다는 토라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메아 쉐아림에만 170여 명이 코로나19 중환자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증상자들이 천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사설 의료 단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정통유대인 마을



#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 초막절을 맞이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가을 절기인 초막절에는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초막 짓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초막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집의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만들고 군부대나 큰 건물 앞에도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절기 동안 초막 안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막절에 브래드TV에도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절 절기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9일, 사옥 옥상에 직접 주문 제작한 초막 뼈대를 김종철 감독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세우고, 예루살렘 그림과 레위기 말씀이 새겨진 천막을 둘러 고정시키고 대나무 발로 열기설기 천장을 덮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초막 짓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브래드TV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초막을 지은 후 많은 분이 영상을 보고 초막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초막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먹을 것을 나누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초막에 모여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누구든 찾아와 초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옥 앞마당에 초막을 짓고 절기에 맞춰 초막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합니다. 부디 내년 초막절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절기를 기념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 영화 '루터의 두 얼굴' 핀란드의 TV7과 계약 연장

2018년에 핀란드의 이스라엘 뉴스 채널 TV7에서 브래드 필름의 다큐멘터리 '루터의 두 얼굴'을 방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TV7에서 루터의 두 얼굴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영화는 핀란드와 스웨덴 자막을 입혀 현지에서 방송되었고, 감사하게도 북유럽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TV7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TV7에서 영화를 방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래드 필름의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은 김종철 감독의 4번째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국의 기독교 영화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2018년 국제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상 2개, 최우수상 1개, 영화제 공식 지정 영화, 베스트 감독상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루터와 반대유대주의에 대해 다룬 이 영화는 브래드 프리미엄으로 비메오(Vimeo) 사이트에서 48시간 유료 대여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브래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이학재 교수의 노래로 배우는 히브리어

브래드TV에서 11월 4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노래로 쉽게 배우는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노래로 히브리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어를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 혼자 공부하기 벅차다고 느꼈던 분들이라면 강사가 가르쳐 주는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히브리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강사인 이학재 교수님은 미국 Bible Theological Seminary(Th. M.)를 졸업하고 부산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부교수이며, Canada Christian College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히브리어를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히브리어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 배울 노래들은 모두 교수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강사님이 직접 연주하는 기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여러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노래로 쉽게 배우는 히브리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대인 신약성경 맛보기

유대인 신약성경 번역팀 제공

브래드TV에서 내년에 출간 예정인 유대인 신약성경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해 맛보기로 유대인 신약성경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의 구절은 1차 번역 초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후에 문맥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은 어떤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다른 기존의 성경들과 어떤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 빌립보서

	개역개정	킹제임스	현대인의 성경	유대인 신약성경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계속 성장시키시어 메시아 예슈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메시아 예슈아와 연합하여서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다스려지게 하십시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강제로 무언가를 빼앗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메시아닉 공동체를 박해하는자, 율법주의에서 요구되는 의에 대해 흠이 없는 자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여러분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 데살로니가전후서

	개역개정	킹제임스	현대인의 성경	유대인 신약성경
살전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b>우리 주 예수아 메시아께서</b>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이 어지게 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이 힘든 일을 감당케 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소망이 인내하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b>(주체가 다름)</b>
살후 2장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b>토라에서 떼어 놓는 일은 이미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나,</b> 다만 막고 있는 자가 몰러날 때까지 그것은 비밀리에 있을 것입니다
살후 2장8절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b>그 때에 토라에서 떼어 놓는 것을 구체화하는 자가 밝혀질 것이며,</b> 주 예수아가 그분의 입김으로 그를 살육하시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으로 그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살후 3장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형제 여러분, <b>나태해지지 마십시오!</b>
살후 3장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충고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로서 권면하고 <b>그의 변화를 도우려 하십시오</b>



루터가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의 방, 책상 위에 초판 원본이 보존되어 있다

# 하나님 말씀의 능력 5부 유럽에 덮친 두 번의 재앙과 종교개혁

글/ 쉬라 소르코 램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46년부터 시작된 흑사병이 1353년까지 유럽 전역에 퍼졌다

암흑기는 가히 천 년에 가깝도록 유럽을 덮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진 노예로 존재했다. 유럽 인구의 8~90%는 영주 혹은 지주를 위해 일하는 농노였다. 그들은 식량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곡식을 제분하고 물레를 돌렸다. 지주들과 그의 노예들은 사실상 자급자족하는 경제 경영자였다. 강제 노동 의무가 끝나고 나면, 소작농과 농노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지주의 땅 한쪽에 먹고살기 위한 농작물 몇 근을 수확하는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내야 했다. 농노들은 이 영지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지만, 지주와 그의 자녀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졌다. 교황들은 십자군들이 떼로 와서 무슬림들을 무

떨러줄 것을 촉구했다. 오히려 그들은 무슬림들을 축출하지 못하고 유대인과 다른 소수 기독교 종파를 포악하게 학살했다. 물론 십자군들은 무슬림과의 접촉을 통해 숫자 체계, 과학, 천문학, 심지어 조선술까지 배우고 발전했다. 이는 유럽의 부와 세력에 가치를 더했다.

그러나 유럽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닥을 쳤다. 그들이 아는 종교는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지역 사제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면죄부뿐이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 관계는 오래전 카톨릭 교회에 의해 잊혀졌다.

### 흑사병

그때 흑사병이 퍼져 유럽을 이전과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들어놓았다. 1346년, 병든 벼룩들이 배에 탄 쥐에 붙어 선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배가 정착하고 물건을 말에 싣고 내리는 곳마다 벼룩으로 감염된 쥐들도 함께 내렸다. 이 전염병은 유럽 대륙 전체를 강타했고 질병에 노출된 지 22일 만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를 팠고, 구덩이는 하루 사이에 시체로 가득 찼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시 7년 동안 유럽 인구의 60%였던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다.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수천 명의 유대인이 그 국가 국민들에게 화형당했다.

흑사병으로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흑사병은 불가피하게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서구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여파를 가져왔다. 너무나 많은 농노와 영주가 죽어, 서구 문명의 경제 질서 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일꾼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의 소유주가 바뀌었다. 많은 소

작농들은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했다. 그러다 보니 임금도 올랐다. 어떤 이들은 직접 땅을 사서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유럽 경제는 번영하고 팽창하기 시작했다.



오스만 제국은 함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러 갔다

### 또 한 번의 재앙

흑사병 이후 또 한 번의 재앙이 닥쳤다. 다른 제국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비잔틴 제국은 자국의 탐욕에 휘둘린 통치자들의 내전과 투쟁으로 인해 내부로부터 몰락했다. 1453년 약화된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에 밀려났고 천 년간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 기독교 제국의 남은 자들에 대해 이 무슬림 제국의 승리가 이번엔 어떤 유익을 가져왔을까?

서구 기독교 국가의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 불가타역뿐이었는데 이 성경은 장마다 카톨릭의 혼합 교리가 완전히 뒤섞여 있었다. 서구 학자들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통째로 상실한 상태였다. 믿기 어렵지만,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몰락조차 교육의 르네상스가 싹을 틔우는 데에 도움이 됐다. 그로 인해 고전 철학과 문학,

예술의 재발견이 이뤄진 것이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를 조장한, 일차적으로 문화 운동이었지만 동시에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에도 일조했다.

아무도 앞으로의 일을 예견할 수 없었다. 비잔틴 제국에서는 여전히 헬라어가 널리 사용되었고 학생들은 헬라의 역사와 문학 교육을 받았다. 또한 주로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어 연구도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했을 때, 헬라 학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유럽

으로 도망갔다. 고대 언어에 대한 유럽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부활했다. 그리고 인쇄기가 막 발명되어, 서구 유럽 전역에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 마르틴 루터 (1483~1546)

바로 이 상서로운 시점에, 독일의 종교, 언어, 문화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한 인물이 등장한다. 사실 그로 인해 서구 문명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1507년에 사제로 임명된 마르틴 루터는 독일인으로 신학 교수, 작곡가, 사제, 수도사이면서 개혁가였다. 체코의 순교자 얀 후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특히 사람을 지옥에서 구해준다면 판매한 면죄부의 관행을 경멸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과 영생은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구속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 주어지

는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식의 원천이라고 가르치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루터의 목적은 독일어를 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는 1534년에 신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자국어로 번역하여 종교개혁에 착수했다.

그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은 독일 문화에 가공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도전했을 뿐 아니라, 독일어 자체를 표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의 찬송가들은 개신교 교회에 노래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의 결혼은 성직자의 결혼이라는 분을 남겨, 개신교 성직자들의 결혼 관행이 허용되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벽 교회 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은 종교 개혁에 불을 붙였다. 카톨릭 교회는 이후 끝없는 분열을 겪었고 이후 등장한 개신교는 루터의 발상들로 구성되었다. 그의 저작들은 서구 종교와 문화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 문자를 배우는 사람들

루터가 번역한 신약은 인쇄기 덕분에 양복이나 신발을 만드는 이들, 심지어 여성과 무지한 사람들에게까지 너무나 빨리 퍼졌다. 독일어를 조금 읽을 줄 알던 그들은 이 새로운 루터의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모든 진리의 샘인 성경을 굉장히 갈망하고 연구했다.

당대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루터의 저작들을 불태워버렸지만, 그는 평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처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한 지역 통치자에게 납치되어 한 성의 은신처로 옮겨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루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의 번역

을 마치는 데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을 쏟았다. 그가 남긴 선례를 다른 학자들이 이어받아 성경을 자국어로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보급했고, 국가 언어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루터는 말년에 성미가 안 좋아진 듯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분노는 그의 인생과 성취들에 지울 수 없는 악의 얼룩을 남겼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에 사람을 아무리 강력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루터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은 증오와 분노는 한 민족을 더럽히고 기독교를 독살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히틀러는 루터의 작품들에서 원조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전 세대를 관통하는 반유대주의라는 악성 종양이 있었다.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이 커다란 죄를 끊지는 못했다.



윌리엄 틴데일의 초상화(1836)

### 윌리엄 틴데일 (1494-1536)

잉글랜드 종교 개혁은 독일보다 훨씬 많은 피를 흘렸다. 존 위클리프가 1300년대 말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어 성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렸다. 윌리엄 틴데일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위클리프가 백 년 전에 다녔던 곳이었다. 신학

학위를 따는 이들은 다른 언어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 공부했다. 그러나 캠브리지 대학교의 홀에서는 이미 루터의 사상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틴데일은 교과 과정에 성경의 체계적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 크게 한탄했다. 틴데일은 그의 교수들에 대해 “그들은 8-9년 동안 이교적 교리를 학습하고 거짓 원칙들로 무장하기 전에는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런 교육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라고 말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잉글랜드의 모든 평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자 갈망했다. 성직자들 가운데에도 성경에 대한 초등 지식이 부족함에 충격을 받은 그는 한 사제에게 말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들에 반항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목숨을 살려 주신다면, 나는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알기 위해 쟁기질을 하는 소년을 돕고 싶다!”

그는 런던에 가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지 주교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떠났다. 물론 그는 존 위클리프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번역본은

사람이 직접 필사했기 때문에 부정확하며, 구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이 아닌 라틴어 불가타역을 번역한 것이었다.

### 목숨을 걸고

함부르크에서 그는 신약의 영어 번역 작업을 했고, 쾰른에서 자신의 작품을 기꺼이 인쇄해 줄 인쇄소를 찾았다. 하

지만 틴데일이 신약을 번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이 들이닥쳤다. 틴데일은 이미 인쇄된 페이지를 가지고 도망쳐, 독일의 도시 보름스에 있는 한 출판사를 찾았다. 그리고 6천 부를 인쇄하여 영국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 캔터베리 주교는 틴데일의 친구로부터 신약 사본 여러 부를 사들여 없애버렸다. 그리고 틴데일의 친구는 틴데일에게 그 돈을 주어, 수정판을 인쇄할 수 있었다.

틴데일은 카톨릭 교회의 격노를 두려워했어야 하는 게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불과 몇 년 전에 여섯 명의 남성과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주기도문과 몇몇 성구를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가르쳤다고 화형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헨리 8세와 교황,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틴데일을 찾기 위해 잉글랜드와 유럽 전역을 뒤지는 와중에도 틴데일은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상인들 사이에 숨어서 구약 번역을 시작했다.



교수형에 처하는 틴데일  
-존 폭스의 저서 '폭스의 순교사' 중 목판화(1563)

### 진정한 천재

틴데일은 라틴어 불가타역과 루터의 최근 독일어역을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였다. 그는 독일에서 랍비들 밑에서 배우면서 히브리어를 익혔다. 헬라어는 사실상 독학했다. 그의 번역체는 간결하고 아름다웠으며, 평민들에게 익숙한 어휘를 썼다. 영국의 신문사 브리티시

텔레그래프(The British Telegraph)는 최근 '그의 천재성이 셰익스피어에 비견할 만하다'고 전했다. 틴데일은 친구인 척 접근한 잉글랜드 사람에게 배신당해 결국 당국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와 복음서에 주어진 자비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이단 재판을 받았다. 그에게 주어진 혐의 중 일부는 이랬다.

-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입장을 견지
- 연옥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
- 성모 또는 성인에게 기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

1536년, 틴데일은 정죄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형을 당한 뒤 사체는 화형대에서 불태워졌다. 존 폭스가 쓴 역사서 '폭스의 순교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윌리엄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몇 마디 유언을 남겼다. '주님,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여소서.'"

### 순교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바로 그 해,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는 완전히 돌이켜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권력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2년 후, 헨리 8세는 잉글랜드의 모든 교회에서 교구민들이 볼 수 있게 영어 성경 사본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 영어 대성경(크기 때문에 이렇게 불림)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윌리엄 틴데일이 불법으로

작업했던 번역본에 기반한 것인데, 죽기 전까지 작업했던 것을 마일스 커버데일이 1535년에 완성했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된 최초의 성경이었다. 국왕의 명령으로 즉시 9천 권의 성경이 잉글랜드 전역에 배포되었다.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

### 다시 카톨릭으로

그러나 헨리 8세의 딸 메리 튜더가 여왕이 된 1553년, 그녀는 잉글랜드를 다시 로마 카톨릭교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대성경을 발간한 존 로저스를 포함하여 280명의 프로테스탄트 반대자들을 화형시켰다. 다행히도 그녀는 5년의 통치를 끝냈고, 잉글랜드의 카톨릭화에 대한 그녀의 바람도 함께 사라졌다.

1611년, 프로테스탄트인 그녀의 아들 제임스 1세가 47명의 학자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제작할 것을 위임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은 틴데일의 번역이 83%, 구약은 76%라고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현재에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성경으로 남아있다.

다음 호에 계속

출처 : 마오즈 이스라엘  
www.maozisrael.org  
사진 출처 : Wikipedia

10월

#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주요 소식

정리/ 이다운



2020.10.4 일

## 대절기 기간 동안 유럽서 반유대주의 테러 잇따라 발생

대절기를 전후해 유럽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초막절 전날인 10월 1일, 프랑스 파리의 한 코서 식당이 반유대주의 테러를 당해 파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테러를 당한 식당 내부에는 부서진 의자와 식탁이 널브러져 있었고 나치의 문양과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쓴 낙서들이 50개 이상 발견됐다. 또 10월 4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회당 밖에서 독일군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독일인 남성이 회당으로 들어가려던 유대인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큰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속죄일을 전후해서 북유럽 20개 도시에서는 신나치 북유럽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유대인 소유의 차량에 나치의 문양을 스프레이로 그린 테러가 발생해, 르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에 대해 트위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 기도 제목 ◆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셔서 반유대주의로 인해  
유대인들의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2020.10.6 화

**베를린서 이스라엘-UAE  
외교부 장관 첫 회담 가져**

이스라엘과 UAE의 외교부 장관이 첫 장관급 회담을 독일 베를린에서 가졌다. 두 장관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과 함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던 아랍 국가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세계의 현저한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 이후 세 장관은 베를린 외곽에 있는 정부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 이날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UAE와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회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 또한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대화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팔레스타인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UAE 간 관광과 무역이 주로 논의되었다.



◆ 기도 제목 ◆

UAE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을 계기로 미국과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12월 안에 성사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이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아랍 세계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협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합니다

2020.10.12 월

**이스라엘-레바논,  
수십 년 이어진 해상 국경 분쟁 위한 협상 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중해 연안에서 거대한 천연가스과 석유 매장지가 잇따라 발견되자 일부 지역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재하고 유엔이 후원했으며 레바논 남부 나쿠라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서 열렸다. 이스라엘 대표단을 이끈 유발 슈타인리츠 에너지부 장관은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경계선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레바논은 지난 8월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심화돼 몸살을 앓고 있다. 베이루트 폭발로 인해 정부가 사퇴했고, 통화 붕괴 및 실업률 상승과 같은 경제 위기가 심화돼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레바논의 총리 지명자였던 무스타파 아디브는 내각 구성에 실패하자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사퇴의 배경에는 헤즈볼라가 장관 지명권을 요구한 것이 중심이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끊이지 않는 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양국을 지키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베이루트 폭발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레바논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키시도록 기도합니다

2020.10.14 수

**터키, 지중해 동부  
천연가스 탐사 재개해 그리스 분개**

터키의 지진 조사선 오루츠 레이스호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탐사를 시작했다. 터키가 파견한 오루츠 레이스호의 작업 해역은 키프로스 섬과 그리스 영토인 카스텔로리조 섬 인근으로, 그리스·키프로스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치는 논쟁 지역이다. 지난 8월, 분쟁 해역을 두고 터키와 그리스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터키는 탐사선을 철수시키며 외교적 긴장을 완화했다. 양국이 신뢰를 재구축하고 분쟁 완화를 위한 회담 날짜를 선정하던 가운데 터키가 이 같은 행보를 보여 그리스와 EU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리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터키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규정하고 '터키는 진심으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터키는 "그리스가 국제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그리스는 지중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터키의 모든 지도자들 위에 계심을 믿으며 터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또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각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020.10.18 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휴전 재합의 4분 만에 무산**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교전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가까스로 현지 시각 18일 0시부터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불과 4분 만에 교전을 재개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측이 0시 4분부터 새벽 2시 25분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북쪽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고, 남쪽을 향해서도 새벽 2시 20분부터 45분까지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러시아의 중재로 지난 10일에도 모스크바에서 휴전에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전을 이어간 바 있다. 양국의 교전으로 인해 아르메니아 민간인 36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당했으며 민간 시설 9천830곳이 파괴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민간인 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70여 명이며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수비군은 633명이 전사했다.



◆ 기도 제목 ◆

양국의 오랜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 두 나라의 싸움에 터키와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있는데,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통해 쿠르디스탄, 시리아, 이란, 이라크로 들어가던 복음의 통로가 닫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020.10.18 일

### 이스라엘 2차 봉쇄령 해제... 반정부 시위 확대로 이스라엘 정국 혼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정책에 반발한 시민 수만 명이 전국 천여 곳에서 총리 퇴진 시위를 벌였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2차 전면 봉쇄와 이동 제한령을 내린 것에 따른 시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텔아비브의 주요 거리에서만 시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예루살렘의 총리 관저 앞도 시위대가 점령해 총리 퇴진을 외쳤다. 이스라엘이 올해 코로나19로 겪은 경제적 손실이 한화로 4조 천억 원에 달하고 실업률은 코로나19 시작 전인 2월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해 21.7%에 이르렀다. 2차 봉쇄가 끝나자 9월 17일부터 한 달 만에 26만 명의 사람이 구직자로 등록했다. 한편 2차 봉쇄 시행 후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2천 명 선으로 줄어들어, 18일부터 1단계 봉쇄 완화에 들어갔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민간 부문이 운영을 재개하고, 벤구리온 공항도 운영을 시작하였다.



◆ 기도 제목 ◆

연일 이어지는 시위와 불안한 연합 정부의 행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2020.10.19 월

### 유엔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종료

10월 18일부로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종료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지난 8월 미국이 제출한 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유엔에서 부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 가동 자격이 없어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거부되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풀린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발령하겠다"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반해 이란은 무기 금수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자국에 필요한 무기를 각국에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또한 이란 무기 금수가 해제되는 10월 19일부터 무기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판 사드'라 불리는 S-400을 이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기도 제목 ◆

이란이 첨단 무기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나가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란의 지도자들을 통치하시고  
이란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합니다

# 유대 역사 속의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나치, 벨직 수용소 설립 (1941)	2일 영국, 벨푸어 선언 (1917)	3일 폴란드, 러시아로부터 독립 선언 (1918)	4일 전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 암살 (1995)	5일 린다 링글, 유대인 최초 하와이 주지사 임명 (2002)	6일 모로코 국왕, 반유대주의 엄중 처벌 선언 (2000)	7일 유대인 공산 혁명가 레프 트로츠키 출생 (1879)
8일 유대계 정치인 존 키, 뉴질랜드 총리로 당선 (2008)	9일 '깨진 수정의 밤' - 유대인 회당과 상점 파괴 (1938)	10일 첫 유대계 의원, 루이스 찰스 레빈 출생 (1808)	11일 전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파리에서 사망 (2004)	12일 유대계 미국인 수영선수 제이슨 레작 출생 (1975)	13일 미국의 첫 유대계 대법원 판사 루이 브랜다이스 출생 (1856)	14일 나치, 뉘른베르크 국가시민법에 '유대인'에 대해 규정 (1935)
15일 엘 알 항공, 이스라엘 국책 항공사로 등재 (1948)	16일 바르샤바 유대인 거주 지역 폐쇄 (1940)	17일 유대계 미국인 야구 스타 라이언 브라운 출생 (1983)	18일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 '모세 작전' 시작 (1984)	19일 유대계 패션 디자이너 켈빈 클라인 출생 (1942)	20일 이집트 정치인 안와르 사다트, 크네셋에서 평화에 대해 연설 (1977)	21일 아리엘 샤론, 리쿠르당 탈퇴 후 '카디마당' 창당 (2005)
22일 UN 결의안 242호 발의 (1967)	23일 유대계 이집트인, "국가의 원수"로 규정 받고 추방 (1956)	24일 페루에서 세파르디 유대인 형성 (1925)	25일 이스라엘,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알마 유전 지역 포기 (1979)	26일 간디,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서신 작성 (1938)	27일 올메르트와 압바스, 아나폴리스 회의에서 평화 논의 (2007)	28일 팔레스타인 아민 알 후세이니, 히틀러와 만남 (1941)
29일 UN 총회, 팔레스타인 분할 투표 (1947)	30일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2차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 (1995)					

## 엘 알 항공, 이스라엘 국책 항공사로 도약

1948년에 설립된 엘 알 이스라엘 항공(EI Al Israel Airlines)은 오늘날 세계에서 진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 중 하나로, 민간 항공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과 그의 아내 베라를 스위스에서 이스라엘로 공식적으로 데려오길 원했고, 이스라엘 공군의 C-54기를 구비하여 '엘 알(EL AL)'로 명명했다. 엘 알은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한 단어로 '저 위로' 또는 '하늘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비행기 내부에는 공군에서 빌린 것들로 설치하고 이스라엘 공군에서 지원자를 받아 승무원으로 배치했다. 1948년 9월 28일, 이 비행기는 바이츠만 대통령과 베라 영부인을 태우고 이스라엘에 착륙했다.

엘 알 항공의 설립 목적은 "평화롭든 전쟁이 벌어지든, 언제나 이스라엘을 세계와 연결한다"였는데, 설립 목적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왔다. 1949년 1월 '독수리 날개 작전'에는 많은 엘 알 항공사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참여하여 약 4만 7천 명의 예멘계 유대인과 3천 명의 합바니 유대인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다.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항공기 좌석을 특수 제작한 나무 벤치로 설치했다. 이스라엘 땅을 밟은 예멘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며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다. 1950년 5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유대인을 데리고 오는 '알리바바 작전'을 완수했다. 이 작전으로 113,000명의 유대인을 이라크에서 구출하였고, 엘 알 항공은 자유와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

1956년 10월 29일에는 제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해 오직 엘 알 항공만이 승객을 국내외로 수송하였다. 조종사의 상당수가 공군 작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엘 알 항공은 더 많은 조종사를 채용하여 승객과 수송 물자를 옮겼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욘키푸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오가는 모든 항공사가 운항을 멈췄으나 엘 알 항공만은 빠르게 이스라엘 시민을 귀국시키고 의료 물품을 포함한 많은 필요 자원을 실어 날랐다. 전쟁 이틀째에는 707 비행기의 내부를 개조하여 '하늘 기차'라는 이름의 긴급 수송 작전을 수행했고 조종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비행하여 2주 만에 비행시간 180시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990년 1월 1일에는 소련에 거주하던 수많은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엑소더스 작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 1991년 5월 약 1만 5천 명의 유대인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솔로몬 작전'에는 300명 이상의 지상 직원과 조종사, 승무원이 주말 24시간 내내 일하며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엘 알 항공은 보잉 747기 한 편에 정상 탑승객 수의 2.5배나 많은 1,087명을 한 번에 실어 국제 항공 기록을 남겼다. 운송 중에는 의사와 승무원의 도움으로 하늘 위에서 3명의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다.

매년 180만 명가량의 승객이 이용하는 엘 알 항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키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운항하지 않는다. 한편 2020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뒤, 9월 1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표단이 아부다비에서 엘 알 항공을 타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왔다. 이는 아랍 국가에서 벤구리온 공항으로의 최초의 직항편으로 사우디 영공을 비행한 최초의 이스라엘 비행기였다.



엘 알 항공의 보잉 747기



독수리 날개 작전에서 나무 의자로 된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예멘의 유대인들

지난 9~10월 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브래드TV 9~10월 프로그램 리스트 (9/30 - 10/21)

### 브래드쇼

9/30

집에서 샷방 빵을 만들어보세요

/ 안귀숙 노엘 성지 연구소 소장



10/7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정 목사의 0000

/ 이정 목사

10/14

유대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알리야는?

/ 지용훈 목사 (1)



10/21

다시 오실 예수님께 외쳐야 할 소리

/ 지용훈 목사 (2)

###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9/30

- 팔레스타인, 아랍 연맹 의장직서 사임 선언
- 팔레스타인, "6개월 내 총선 실시 할 것"... 14년 만에 처음
- 이스라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천 명대... 강화된 봉쇄 실시

10/14

- 이스라엘-UAE 외교부 장관, 베를린서 첫 장관급 회담 가져
-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바이든 당선 시 이스라엘에 악재"
- 대절기동안 유럽서 반유대주의 테러 잇따라 발생

10/21

- 터키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 재개... 그리스 분노
- 틱톡, 홀로코스트 왜곡 영상 막지 않아 맹비난 받아
- 코로나19 감염률 하락에 벤구리온 공항 운영 재개

### 브래드 브리핑



9/30

쏟아지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두려우신가요?



10/14

터키 대통령의 망언,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



- 10/7  
마지막 평화 협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정 (1)
- 10/21  
마지막 평화 협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정 (2)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0/7  
-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의 긴급한 기도 요청
- 레크 레카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 10/21  
- 메시아닉 사역자의 집을 삼켜버린 불길
- 유대인 뉴스에 등장한 아랍 그리스도인
- 베두인의 핍박과 긴급한 기도 제목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 9/30  
- 이스라엘과 UAE & 바레인 협정 체결
- 아이언 돔에 관한 새 다큐멘터리
- 유대력 새해이자 성경의 나팔절 로쉬 하샤나
- 용서를 구하는 기도, 슬리훗



- 10/7  
- 절기에도 이스라엘 봉쇄 재개
- 하나님의 사랑을 전선에서 펼치는 '버마 자유 민병대'
-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이스라엘의 기술 혁신
-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대속죄일 기도

- 10/14  
- 이스라엘 봉쇄 조치,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미국의 회개 기도 행진 '더 리턴'
-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하는 이유
- 초막절 준비와 초막 짓기



- 10/21  
-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영토 분쟁
- 이스라엘에서 자가격리 중인 크리스 미첼이 전해주는 중동 상황
- 이스라엘 찬양 사역자, 실로 벤 호드
- 봉쇄 기간 동안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는 CBN 이스라엘

**금요 샤бат 예배**



- 9/25 '욘 하키프림-속죄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 이재철 목사
- 10/16 죄악론 4강-죄의 본성과 근성 / 김종배 교수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 10/14 1번째 주 "베레쉬트"
- 10/21 2번째 주 "노아흐"

**이스라엘 ON 유튜브**

- 9/30 초막절에는 왜 기뻐해야 할까?
- 10/7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라 속의 진주**

- 9/30 토라 속의 진주 5회 - 베살라흐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10/7 토라 속의 진주 6회 - 이드로 (1+2+10=613!)

# 내 손 안에서 보는 이스라엘

BradTV 홈페이지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bradtv.net***



이스라엘의 생생한 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해보세요

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